



제07-39호

호주의 자원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전략

김한성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배희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hybae@kiep.go.kr, Tel: 3460-1075)

주요 내용

- ▣ 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수립함.

 - 제2차 기본계획에 비해 자원자급률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산업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면서 세계 최대 자원보유국의 하나인 호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 호주는 각종 에너지·광물 자원의 세계 최대 보유국이자 생산국으로, 한국의 6대 전략광물 중 우라늄, 아연, 니켈의 세계 최대 보유국이며 동 매장량에서 세계 2위, 유연탄과 철 매장량에서 세계 5위의 국가임.
- ▣ 호주가 한국에 매력적인 광업부문 투자시장이 될 수 있는 이유로는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고 투자에 대한 안정성과 투명성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점과 투자 및 개발 과정에서 호주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배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음.
- ▣ 특히 현재 발표된 호주 자원개발계획 중 한국의 자주개발률이 낮은 우라늄과 니켈에 대한 개발계획과 한국의 對호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발계획은 직접 투자 진출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 또한 향후 한국과 호주 간 FTA가 추진될 경우, 호주 자원시장 참여 및 자원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략을 협상 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 머리말

- 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수립함.¹⁾
 - 동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13년에는 20%, 2016년에는 2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함.²⁾
 - 이는 지난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13년까지 18%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2% 상향 조정한 수치임.
 - 또한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우리나라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자주개발률이 2006년 기준 38%인 유연탄과 31%인 아연의 경우 2016년까지 각각 50%, 4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함.
-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산업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중국, 인도 등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흥시장들이 세계자원시장의 블랙홀로 등장하면서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가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이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앞서 ‘무엇으로 생산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돌입함.
 - 한국의 광업부문 해외투자도 지난 2002년 약 2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약 14억 달러 규모로 급격히 성장함. 정부가 산업 핵심 원자재의 자주개발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이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면서 세계 최대 자원보유국의 하나인 호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1)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지난 2004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 제3차 기본계획이 발표됨.

2) 자주개발률=((국내생산량+해외개발분)/국내소비량)×100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6일 간부회의에서 “주요 원자재를 저가에 확보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도 “필요한 경우 신속히 추진하라”고 밝힘.
- 중·호주 FTA가 협상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도 이미 호주와의 FTA 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한국과 호주 간의 FTA 체결이 미뤄질 경우, 이는 한국의 호주 자원 시장 진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호주 자원시장의 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함.

2. 호주의 주요자원 보유 및 개발 현황

가. 주요 광물자원 보유 및 생산 현황

- 호주 광업부문의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는 1994/95 회계연도에서 2004/05년까지 10여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함.
- 1996/97 회계연도에 약 6%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함.
- 지난 10여 년간 광물산업 부문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국제 광물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호주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 호주는 각종 에너지·광물 자원의 세계 최대 보유국인 동시에 생산국임(표 1 참고).
- 2005년도 통계에 따르면 호주는 갈탄, 납, 미네랄샌드(금홍석, 지르콘), 니켈, 탄탈럼, 아연, 우라늄의 경제적 매장량³⁾이 세계 최대이며 보크사이트, 구리, 금, 은, 일메나이트 매장량은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남.

3) 경제적 매장량(EDR: Economic Demonstrate Resources): 경제적으로 채굴 타당성이 있는 자원의 매장량. 새로운 광구의 발견이나 과학기술의 진보, 해당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상승 등은 경제적 매장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 밖에도 공업용 다이아몬드에서 세계 3위, 망간과 철광석의 경우 세계 5위의 매장량을 지닌 호주는 '주요 광물자원의 보고' 라 불릴 만함.

표 1. 호주 주요 광물자원의 매장량 현황

광종	단위	호주 EDR	세계 EDR	호주 비중(%)	매장량 순위
보크사이트	기가 톤	5.8	25	23	2위
역청탄(채굴 가능한)	기가 톤	39.2	739	5	6위
갈탄(채굴 가능한)	기가 톤	37.4	155	24	1위
동	백만 톤	41.4	490	8	2위
다이아몬드					
보석용	백만 캐럿	124.2	-	-	n.a.
산업용	백만 캐럿	129.2	614	21	3위
금	톤 Au	5,225.0	42,225	12	2위
철광석	기가 톤	16.4	160	10	5위
납	백만 톤 Pb	23.8	75	32	1위
리튬	천 톤 Li	170.0	4,100	4	-
망간	백만 톤	143.0	1,200	12	4위
미네랄샌드					
일메나이트	백만 톤	214.9	1,115	19	2위
금홍석	백만 톤	20.5	51	40	1위
지르콘	백만 톤	32.9	77	43	1위
니켈	백만 톤 Ni	23.9	64.1	37	1위
은	천 톤 Ag	44.0	283	16	2위
탄탈럼	천 톤 Ta	52.0	55	95	1위
우라늄	천 톤 U	716.0	1,947	37	1위
아연	백만톤 Zn	41.8	228	18	1위

자료: 호주통계청, Year Book Australia 2007.

- 호주가 국제 자원시장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풍부한 자원 매장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자원 부국에 비해 정치·경제적인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며 건실한 경제 하부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점, 자원개발을 위한 높은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국유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치·경제적 안정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건실한 경제 하부구조는 자원개발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함.
- 컨설팅 기업인 Behre Dolbear & Company, Inc.가 실시한 광업부문 투자의 종합적 안전도 조사에서 호주는 2005년부터 3년 연속 가장 안전한 광업 투자 대상국으로 선정될 정도로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

- 또한 호주는 광산 개발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 광산시장에서 호주산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표 2]는 2001/02년에서 2004/05 회계연도까지 호주의 에너지·광물자원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음.
-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광종은 망간으로 5년간 생산량이 무려 85% 증가하였으며 다이아몬드(44% 증가), 철광석(43% 증가)이 뒤를 잇고 있음.
- 이 밖에도 역청탄, 천연가스, 티타늄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함.
- 반면에 금, 일메나이트, 금홍석, 아연, 원유 및 납의 생산은 동 기간 중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원유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짐.

표 2. 최근 호주 주요 에너지·광물자원의 생산 추이

광종	단위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01/02 대비 05/06년 증가율(%)
보크사이트	백만 톤	55	54	54	56	58	5.5
동	천 톤	2,577	2,590	2,555	2,340	2,672	3.7
금	톤	296	265	278	267	266	-10.1
철광석	백만 톤	176	185	199	223	252	43.2
납	천 톤	1,000	1,020	970	960	997	-0.3
망간	천 톤	1,948	1,850	2,472	3,094	3,606	85.1
니켈	천 톤	195	193	183	185	192	-1.5
일메나이트	천 톤	2,092	1,843	2,069	1,910	2,006	-4.1
금홍석	천 톤	209	207	208	154	174	-16.7
탄탈럼	천 톤	181	186	189	196	203	12.2
우라늄	톤	9,549	7,823	9,172	9,569	10,964	14.8
아연	천 톤	2,697	2,715	2,806	2,536	2,506	-7.1
역청탄	백만 톤	258	273	275	286	305	18.2
갈탄	백만 톤	68	69	69	70	71	4.4
다이아몬드	천 캐럿	22,475	30,676	32,006	24,310	32,446	44.4
원유	백만 리터	38,705	36,100	33,320	27,876	25,372	-34.4
천연가스	백만m ³	31,524	32,136	33,159	33,259	37,267	18.2
LPG	백만 리터	4,056	4,647	4,681	4,639	4,628	14.1

자료: 호주통계청, Year Book Australia 2007.

나. 광물탐사 관련 지출 추이

- 에너지·광물 자원 탐사에 지출된 비용은 2005/06년에 총 12억 4,000만 호주달러⁴⁾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함(표 3 참조).
- 이는 2001/02년에 비해 6억 호주달러(94%)가 늘어난 수치이며, 2004/05년과 비교할 경우 약 2억 1,000만 호주달러(2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 있는 호주 에너지·광물자원 탐사 관련 지출의 증가는 호주 자원의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호주 자원시장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 지역별·광종별 광물탐사 관련 지출 추이

(단위: 백만 호주 달러)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1/02 대비 2005/06 증가율 (%)
지역별						
뉴사우스웨일스	48.2	58.8	50.5	73.6	114.0	136.5
빅토리아	33.9	46.2	53.5	51.5	74.1	118.6
퀸즐랜드	92.6	114.2	125.2	166.4	218.8	136.3
남호주	32.1	36.7	41.7	66.8	146.5	356.4
서호주	381.1	423.6	465.8	606.0	590.2	54.9
태즈메이니아	4.0	4.3	7.5	8.3	22.6	465.0
노던테리토리	48.5	49.0	42.5	55.6	74.7	54.0
광종별						
베이스메탈	132.8	142.3	151.8	261.1	356.6	168.5
금	331.3	378.4	397.1	391.7	399.7	20.6
철광석	25.2	44.4	63.7	138.0	161.2	539.7
미네랄샌드	33.2	27.3	23.8	27.6	29.2	-12.0
우라늄	8.7	6.9	10.5	20.7	56.1	544.8
석탄	50.4	77.8	81.5	126.8	166.4	230.2
다이아몬드	35.4	29.9	25.8	23.7	22.6	-36.2
기타	23.5	25.8	32.5	38.7	49.0	108.5
총계	640.6	732.8	786.7	1,028.3	1,240.7	93.7

자료: 호주통계청, Year Book Australia 2007.

4) 2007년 8월 20일 기준으로 1 호주달러는 0.80 미국달러임.

- 지역별로는 호주 남쪽에 위치한 태즈메이니아 주에서의 탐사비용이 약 1,900만 호주 달러 증가하여 지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서호주에서의 탐사활동이 지난 5년간 전체 탐사비용의 48~59%를 차지하면서 탐사활동이 집중된 지역으로 파악됨.
- 광종별로는 동 기간 금에 대한 탐사비용이 총 광물탐사 비용의 32~52%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광종은 철광석과 우라늄으로 5년 동안 각각 1억 3,600만 호주달러와 4,700만 호주달러가 증가하여, 두 광종 모두 탐사비용이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리와 석탄에 대한 탐사비용 지출도 둘 다 3배 이상 증가함.
- 특히 동 기간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탐사비용 지출이 3억 7,900만 호주달러만큼 증가(43%)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임.
- 최근 들어 호주산 천연가스의 對한국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과 안정성이 천연가스 생산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호주 천연가스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 1979년 최초로 일본에 천연가스를 수출한 이래 대부분의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음. 특히 현재까지 일본과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에서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호주 천연가스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음.
-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호주 내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탐사비용 증가는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한국의 對호주 자원시장 수급 의존도 및 투자 현황

가. 한국의 對호주 에너지·광물자원 수입 현황

- 호주는 이미 국내 주요 광물자원 수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아래 [표 5]의 對호주 주요 에너지·광물자원 수입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에서 수입되는 철광석, 유연탄, 아연, 천연가스의 수입액이 지난 2000~06년 동안 급격히 증가함.

- 지난 6년간 철광석의 호주 수입액은 2배 이상 늘어났고 유연탄 수입총액은 147% 상승하였으며 아연의 경우 291%, 천연가스는 19배 이상 증가함.
- 하지만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철광석, 유연탄, 아연의 수입총액 증가는 수입량 증가보다는 국제 광물시장의 광물자원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큼.

표 5. 對호주 주요 에너지·광물자원 수입현황(200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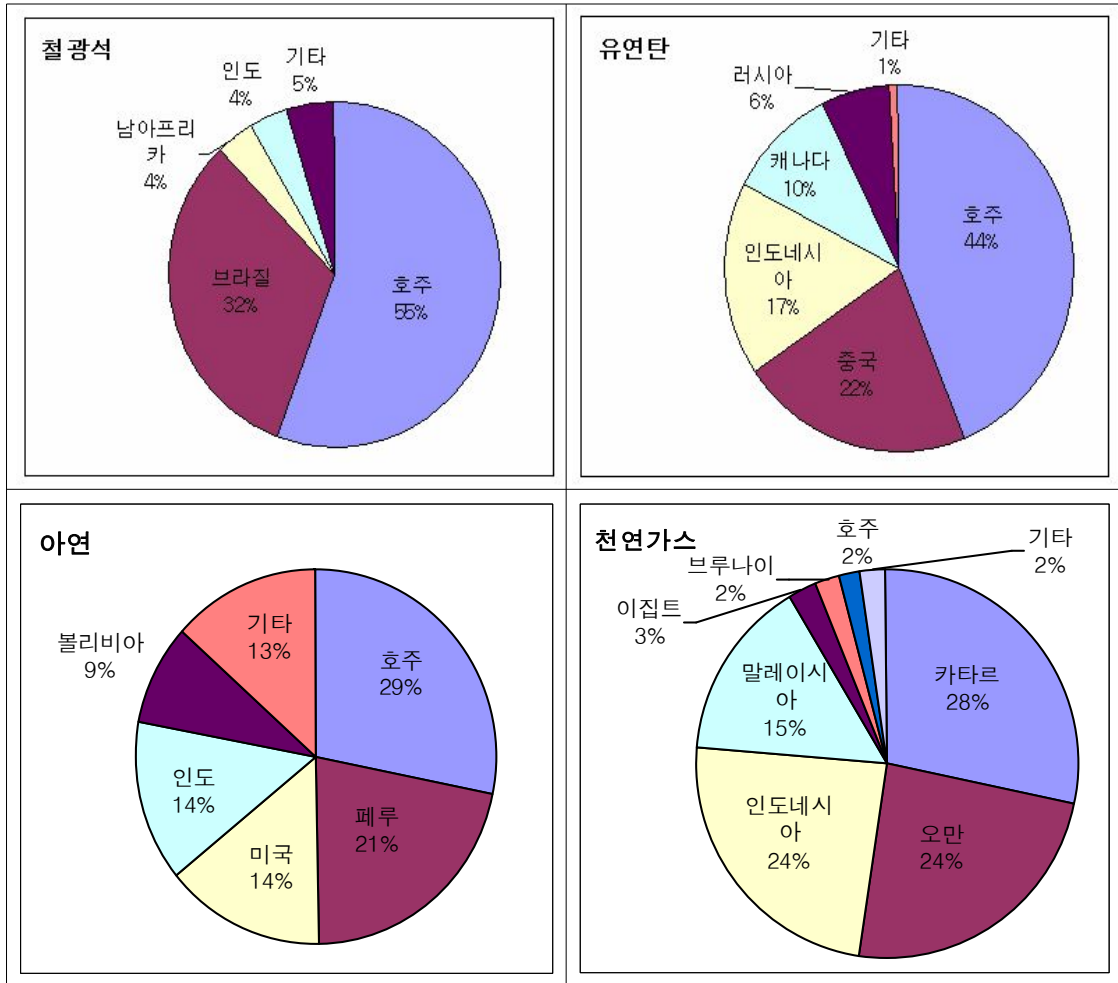
연도	철광석		유연탄		아연		천연가스	
	백만 미국달러	백만 톤	백만 미국달러	십억 톤	백만 미국달러	천 톤	백만 미국달러	천 톤
2000	434	21	833	22	113	418	10	54
2001	596	28	902	24	96	451	16	57
2002	538	26	1,008	26	73	340	41	176
2003	599	27	951	25	96	390	29	123
2004	688	27	1,522	29	118	384	77	285
2005	946	26	2,197	30	260	612	260	748
2006	1,322	28	2,060	28	442	401	206	701

자료: 무역협회 통계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 이들 각 광물자원이 한국의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철광석, 유연탄, 아연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호주는 한국의 최대 수입국가임(그림 1 참고).
- 2006년 한국의 철광석 수입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로, 호주는 제2의 수입국인 브라질(32%)을 크게 앞서는 최대 수입국이며 유연탄의 경우 총 수입의 약 44%가, 아연은 총 수입의 29%가 호주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집계됨.
- 단 천연가스의 국내 주 수입원은 카타르(28%), 오만(24%), 인도네시아(24%), 말레이시아(15%)의 순으로, 호주산 천연가스 수입은 한국 전체 수입의 약 2% 정도로 미미함.
- 하지만 한국의 對호주 천연가스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과 호주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약 2.46조 세제곱미터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버금가는 매장량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천연가스 수입에서 호주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⁵⁾

5)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는 매장량은 각각 약 2.46조 세제곱미터와 2.56조 세제곱미터로 추산되며 이는 호주의 매장량(2.46조 세제곱미터)과 비슷한 수준임(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5).

그림 1. 호주산 에너지·광물 자원의 국내시장 수입 비중(2006)



자료: 무역협회 통계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나.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 현황

■ 2006년 말 까지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승인기준으로 총 408건에 30억 8,700만 달러에 이르며 이 중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총 30건에 21억 7,3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됨.

-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건수는 미미하지만 투자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對호주 투자에서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투자가 집행된 투자를 기준으로 집계해 보면 2006년 말까지 한국의 對호주 투자액은 약 10억 1,100만 달러로 이 중 약 32%에 해당되는 3억 2,500만 달러가 광업부문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 즉, 승인기준과 투자기준을 비교할 경우 투자가 승인되었더라도 실제 집행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호주로 진출할 때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6. 한국의 對호주 광업부문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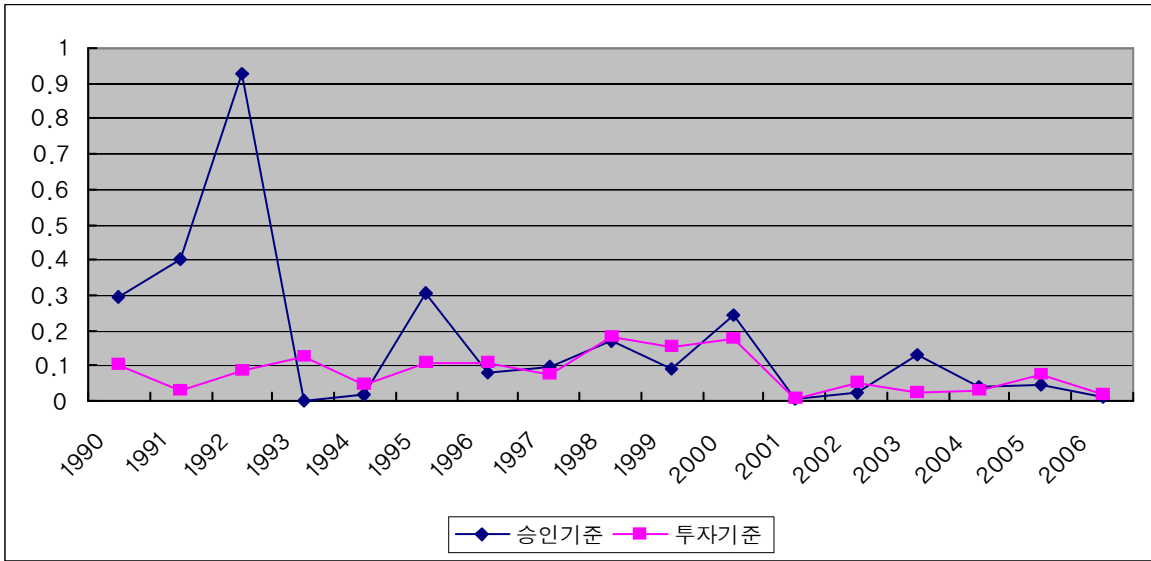
(단위: 건, 천 미국달러)

연도	승인기준					투자기준				
	총 투자 건수	총 투자액	광업 투자 건수	광업부문 투자액	광업 투자 비율	총 투자 건수	총 투자액	광업 투자 건수	광업부문 투자액	광업 투자 비율
2000	26	123,082	1	82,073	66.7%	24	58,057	1	15,988	27.5%
2001	18	11,608	0	750	6.5%	18	10,613	0	389	3.7%
2002	17	54,909	0	11,406	20.8%	14	62,663	0	10,413	16.6%
2003	18	186,222	2	123,827	66.5%	17	49,986	2	6,816	13.6%
2004	23	79,739	0	13,384	16.8%	23	54,020	0	7,851	14.5%
2005	45	132,561	3	37,872	28.6%	43	104,698	3	33,389	31.9%
2006	49	187,899	2	45,819	24.4%	48	142,269	1	24,756	17.4%
누계	408	3,086,598	30	2,172,802	70.4%	376	1,011,468	28	325,359	3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광업부문에 대한 총 해외투자 중 호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말 승인기준으로 약 17.6%를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기준으로는 전체 해외 광업부문투자의 6.5%에 불과함.
- 투자기준으로 1998~2000년까지 15~18%에 이르던 호주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1년 이후 5% 이하로 떨어짐.
- 이는 호주의 자원 보유량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한국의 관심과 진출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줌.

그림 2. 한국 광업부문 해외투자의 對호주 투자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한국의 對호주 자원시장 진출 전략

가. 한국의 수요와 호주의 공급

- 호주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진출 국가로 고려됨.

- 호주는 한국의 6대 전략광종 중 우라늄, 아연, 니켈 매장량에서 세계 1위, 동의 매장량에서 세계 2위, 유연탄과 철의 매장량에서 세계 5위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있어서도 6대 전략광종 모두 세계 5위권 안에 들어 있음(표 7 참고).

표 7.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목표치 및 호주 보유·생산량

광종	2006년 자주개발률	2016년 자주개발률 목표치	호주 보유 및 생산 현황	
			매장량	생산량
유연탄	38.0%	50%	5위	4위
우라늄	-	15%	1위	2위
철	11.8%	30%	5위	3위
동	2.0%	35%	2위	5위
아연	31.0%	40%	1위	3위
니켈	-	30%	1위	3위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7년 8월 7일); ABARE 통계.

- 호주가 한국에 매력적인 광업 관련 투자시장이 되는 이유로는 자원이 풍부하고 투자에 대한 안정성과 투명성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요인들을 꼽을 수 있음.
 - 첫째는 호주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들 수 있는데, 광활한 국토에 2,000만의 적은 인구,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진입 단계에 있는 호주는 자국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을 모두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외국 자본·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이는 자국 광업 개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견제하려는 인도네시아 등 몇몇 자원 부국들의 움직임과는 차이를 보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자원개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됨.
 - 또한 호주 자원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자원개발에 대한 호주의 세계적인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호주 자원개발 참여의 긍정적인 파생효과로 볼 수 있음.
 - 제3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도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자원개발을 위한 엔지니어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호주 진출은 호주가 지니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고 한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

나. 관심 투자대상 및 진출 전략

- 2007년 4월 호주 농업·자원경제부(ABAR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광업부문에 총 217건에 이르는 신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음(표 8 참고).
 - 총 투자규모는 962억~1,011억 호주달러로 투자계획 건수로는 역청탄에 대한 투자계획이 총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액으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액이 296억~336억 호주달러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올해 초 광업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는 다소 소강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2007년의 신규 투자규모도 호조를 보임.

표 8. 광종별 프로젝트 추진 현황

(단위: 백만 호주달러)

광종	투자계획 건수	투자규모	비고
역청탄	37건	9,268.5~9,768.5	9건/3,789
석탄층 메탄	5건	421	4건/386
석유 및 천연가스	29건	29,626~33,626	12건/9,226
우라늄	11건	1,037.6	3건/82.6
보크사이트	1건	700	0건/0
동	14건	8,264.3	5건/1,172
금	30건	4,807.4~4,832.4	9건/2,556
철광석	29건	28,137	9건/12,260
납·아연·은	17건	1,639	9건/779
미네랄샌드	16건	1,035.6~1,291.6	4건/179.6
니켈	21건	10,264~10,349	4건/3,142
희토	2건	246	1건/96
주석	2건	78	0건/0
바나듐	3건	721	1건/175
합계	217건	96,245.4~101,111.4	70건/33,843

주: 비교란은 이미 착수된 프로젝트의 건수와 금액임.
 자료: ABARE, List of Major Minerals and Energy Projects(April 2007).

- 한국은 특히 천연가스와 6대 전략광물에 속한 우라늄과 니켈의 개발계획에 대한 투자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대 전략광물자원에 속하는 철광석, 유연탄의 경우 한국의 對호주 수입 비중이 2006년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동 광종에 대한 호주 투자 참여는 對호주 수입 비중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의 안정적 수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반면에 현재 한국의 우라늄과 니켈의 자주개발률이 전무하다는 점과 호주가 동 광물의 최대 보유국이라는 점은 한국의 직접투자 진출에 장점이 됨.
 - 또한 천연가스의 경우 호주의 매장량이 뛰어나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의 주요 수입국가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매장량을 지니고 있고, 천연가스의 특성상 파이프라인이나 안정성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호주 천연가스 개발이 비교우위를 지님.
 - 현재 대한가스공사를 국제적인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세계 1위의 LNG 구매력을 지닌 가스공사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 특히 우라늄은 현재 호주 내 남호주와 노던테리토리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나 최근 호주정부가 우라늄 개발 및 원전 관련 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우라늄 개발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한국 진출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음.
- 1996년에도 호주정부는 3개 우라늄 광산정책(Three-Mine Policy)을 폐기하고 우라늄 광산의 추가 개발을 허용하였으나, 우라늄 매장지역인 퀸즐랜드 주, 서호주 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는 우라늄 개발에 반대하는 야당이 집권하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됨.
- 2007년 말에 호주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우라늄 신규 개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야당(노동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개발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음.
- 또한 호주 자원시장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호주와의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호주는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해 온 바 있음.
 - 존 하워드(John Howard) 호주 수상은 지난 2000년 5월 한국 방문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양국간 FTA를 제안하였으며,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양국간 FTA 체결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등 계속적으로 한·호주 FTA 체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한국정부는 호주와의 FTA가 호주의 농축산물 등 민감품목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함.
 - 하지만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이 우려하는 호주산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은 어느 정도 희석될 것으로 여겨짐. 즉 한·호주 FTA에 따라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품목에서 호주산 제품과 미국산 수입 제품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는 완충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와의 FTA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평가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그러나 실제로 한국이 호주와 FTA를 추진하게 될 경우,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참여 및 자원수급 확보를 위한 한국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협상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예를 들어, 한국의 對호주 광업 투자가 호주의 광업개발 기술력을 전수받고 광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상호인증이나 노동허가 및 체류 비자 등 관련 사안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또한 광물자원 개발과 더불어 진행되는 사회기간시설 건설사업도 한국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한국의 입장이 정부조달이나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요구됨.

5. 결론

- 일본과 중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보다 활발한 호주 자원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표 9 참고).
- 일본의 경우 오랜 호주 진출 역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호주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호주 자원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지난 2005/06 회계연도 기간 무려 67억 5,800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호주 광업부문에 투자함.
- 또한 중국 바오스틸(Baosteel)社와 호주 포테스큐(Fortescue Metals Group) 간 연간 2,000만 톤 규모의 철광석 장기 공급계약, 호주 원스틸(Onesteel)社와 중국 상시하이신(Shanxi Haixin Iron & Steel)과 허베이진시(Hebei Jinxi Iron & Steel) 간에 총 1,200만 톤 규모의 10년 장기 계약 체결 등 호주 광물자원에 대한 직접 진출 및 장기계약을 통한 광물 수급 확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표 9. 일본과 중국의 對호주 광업 투자 추이

(단위: 백만 호주달러)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일본	861	333	427	28	726	1,845	635	318	1,431	335	254
중국	5	-	-	0	-	-	0	-	971	39	6,758

주: 1) 호주 회계연도(7월 1일 ~ 6월 30일) 기준임.

2) 중국의 경우 96/97, 97/98, 99/00, 00/01, 02/03년도는 호주 투자청의 자료 미비로 '-'표시함.

자료: 호주 외국인투자청(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현재 진행 중인 중·호주 FTA에서 중국은 중·호주 FTA를 통해 호주산 자원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일본이 올해 호주와의 FTA 협상을 시작한 것도 호주시장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됨.
-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호주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주목하는 동시에 한·호주 FTA 추진도 '주요 자원의 자주개발률 향상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